

경전선 '鐵馬'는 복선전철 달리고 싶다

경상도 구간 복선·전철화...광주~순천 구간 수십년 단선 방지
영호남 인적·물적 교류 증진 위해 정부 투자 신속히 집행돼야

호남지역의 대표적 낙후기반시설로 꼽히는 경전선 전라구간에 대한 정부 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경전선의 경상도 구간은 복선화와 전철화를 이미 마쳤지만, 전라도 구간은 단선 철도로 수십년간 방치되면서 경상도 구간의 전철화시설도 무용지물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상도 구간에 대한 집중투자가 '독이 됐다'는 것이다. 국토 하단부의 동서 연결은 영·호남의 장벽 철거를 통한 국가역량 결집, 인적·물적 교류 증진을 통한 양 지역 발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전선 전라도 구간의 전철화 및 복선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날 국토교통

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2016~2025)'에 사업비 2조304억원의 경전선 광주송정~순천(116.5km)에 대한 단선전철화사업이 포함됐으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B/C(비용편익분석)가 0.55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경제성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남도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상도 구간(진주~마산~삼랑진, 마산~부전)이 모두 3조3639억원을 들여 전철화를 모두 마쳤거나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지만, 일반철도인 전라선 구간으로 인해 전철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마산~삼랑진 구간(51.5km)은 사업비 1조1454억원을 들여 지난 2012년 공사를 마쳤고, 1조4909억원의 마산~부전(50.8km) 구간은 2019년 복선전철화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결국 단선에 일반철도인 전라도 구간으로 인해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라도 구간의 전철화는 2018년부터 예산이 반영된다고 가정해도 8년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2026년에야 가능하다. 2012년 완공된 경상도 구간 전철 설비는 무려 14년을 허비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현재 곡선화, 비전철화로 전라도 구간의 운송 능력이 크게 뒤떨어지면서 대규모 화물이 익산을 거쳐 부산신항으로 운송되면서 물류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현재 115.7km인 광주송정~보성~순천~광양을 가는데 3시간여가 걸리는데 비해 95.5km인 진주~마산~삼랑진은 1시간30분이면 갈 수 있다. 전남도는 광주송정~순천이 전철화되면 60%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물운송비용(20피트 컨테이너 기준)은 21만4000원에서 15만1000원으로 6만3000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송정~순천은 경전선의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으로 이로 인해 열차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최대 한 이르면 시간 내에 전철화와 복선화를 끝내는 것이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기념사업 '유탄' 우려

법원 의뢰 감정평가 440억...광주시 제시 34억과 큰 차이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이하 U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의뢰한 임대료 감정평가 결과가 440억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2면> 20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지정한 전문감정인은 U대회 선수촌 사용료로 443억 원을 제시했다. 이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광주시가 제시한 금액보다 소송을 제기한 광주 서구 화정주공아파트 재주택재건촉진사업조합 측이 요구한 금액에 가까운 액수다. 조합 측은 11개월분에 대한 아파트 사용료, 금융비용, 이주비 등과 부가

세를 포함한 467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시는 대회기간 사용료와 시설원상복구 등 126일간 사용료로 34억 원을 제시했다. 법원이 의뢰한 감정평가액은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만, 재판부가 이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시와 조합은 증빙자료 등을 통해 각자가 제시한 금액에 맞춰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시와 조합 측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2014년 협상을 벌였으나 금액 차이가 너무 커 소송으로 이어졌다. 광주시는 화정주공 재건축 아파트 전체 3천726가구 중 2천445가구를 선수촌으로 빌려 썼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찝통' 광주 '가마솥' 전남

연일 34도 치솟는 폭염 맹위

20일 광주시 서구 용암동과 화순 이양면의 낮 최고기온이 각각 34.1도, 33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는 이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폭염은 장맛비가 예상되는 주말인 2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7면>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시와 나주시를 시작으로 화순군, 무안군, 함평군, 담양군, 신안군, 곡성군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며 광주의 경우 지난 7일에 이어 2번째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의 원인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뜨거운 남풍이 한반도로 불어오는 상태에서 구름은 적고 일사량은 많은 날이 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기상청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광주·전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계속되다가 장맛비가 예상되는 오는 23일부터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더위탈출' 장기 삼매경...독서 삼매경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2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0일 광주 동구 금남로 47가역 무더위 쉼터에서 시민들이 장기를 두고(위), 서구 광천동 영풍문고를 찾아 책을 읽으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원·효천·양산지구 등 '급행버스' 운행

광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전 9월부터 시범 투입 예정

광주시가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앞서 오는 9월부터 급행버스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기존 급행버스 구간을 제외한 수원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급행버스를 투입, 운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급행버스는 주요 생활권을 이르는 30분 이내에 연결하는 버스로, 정류장 2~3곳을 한곳으로 묶고 이용객이 많은 환승지역 위주로 운행한다. 신도시로 인구가 많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수원·효천·양산·선운지구 등이 주요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현재 운행 노선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노선을 확정하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

쳐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급행버스는 제2 순환도로를 따라 운행하는 순환 01번 등 5개 노선에 125대가 운행중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4~5월 시내버스 이용도 조사를 해 주요 정류소별 승차차 인원, 노선 및 시간대별 이용 인원, 대중교통 환승 여부 등 자료를 수집했다. 광주시는 또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나서 201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은 2006년 말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전면 개편에 이어 10년만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원, 침단, 선운지구 등 도심 외곽으로 신형 택지개발이 집중 이뤄졌지만 교통 접근성은 이를 뒤따라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노선개편에 나서게 됐으며 앞서 급행버스를 시범 운행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 너무 앞서갔나? 고사한 나무 ▶6면
- 그림편지-화가 백준선의 제주 ▶18면
- KIA 나지완의 '타순 여행'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세방산업 대시민 사과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배출 관련하여 광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세방그룹 비상대책위원장 이용준
세방산업 노조 위원장 박거영

그간 당사는 TCE 방지 시설을 갖춰 운영해왔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TCE 배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었던 점에 매몰되어 TCE 배출량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시민 여러분의 따끔한 지적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 저희는 이러한 위험 물질 배출의 최소화를 위해 광주시, 학계,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과 추진 전 과정을 광주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광주시민 여러분께 피해와 염려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재점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016년 7월 21일